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4월 16일(수) 제 3077호

민주당 대선후보 27일 최종 확정

이재명·김동연·김경수 3인
4회 권역별 경선 돌입
16일부터 총청 시작
권리당원·국민 각 50%
온라인 투표 병행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4차례 실시하고 오는 27일 대선후보를 선출기로 했다.
박병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관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권역별 순회 경선 일정은 △1차 충청권 16~19일 △2차 영남권 17~20일 △3차 호남권 17~20일 △4차 수도권·강원·제주 24~27일 순으로 진행된다.
순회 경선 기간 중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권역별 경선 마지막 날인 19일, 20일, 26일, 27일에 합동 연설회를 열고, 권역별 투표 결과를 발표기로 했다.
경선은 국민경선 50%와 권리당원 50%의 비중으로 실시하며, 국민선거인단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더민주 제1차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중앙당 선관위 회의를 개최하고 권역별 순회 경선을 4차례 실시한 뒤 오는 27일 당 대선후보를 선출기로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다. 최종 후보는 각 권역별 경선 결과와 일반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27일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오는 18일 지방선거를 통해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선일정에 따라 15일 하루동안 후보 등록을 하고, 기탁금 1억원과 본경선에 에 따른 3억원 등

모두 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8명이다. /서울=김영목 기자

대광법 국무회의 의결 전북 '한 경제생활권'으로

전주권, 광역교통계획 포함
KTX환승·BRT 등 국고 지원
한덕수 대행, 내주 공포 예정

전북자치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권이 광역교통 정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광역 교통시설 국고지원과 통합 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다음 주 공포를 통해 공식 시행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주시와 완주, 익산, 김제 등 전주 생활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돼 향후 정부의 광역

교통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 효자·김제·완주 간 도로 신설·확장, KTX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이 실제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도교통부는 광역교통기본계획(2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라 권역별 교통수요 조사와 도 간 협의체 운영을 병행한다. 정부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시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
완주·익산·김제·군산 등에서 전주로 오가는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40만 건 이상으로, 실질적인 광역생활권임에도 그동안 국비지원과 정책대상에서 배제돼 있었다. 이번 지정으로 단순한 교통개선을 넘어 산업유치,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김영태 기자

전북, 미래산업 중심 국비 확보 '전면전'

'26년 예산 확보 본격 대응
중기부·산업부·과기부 방문
신산업·창업 생태계 중점
수소·모빌리티 지원 요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전북자치도는 올해도 9조 6천억 원 이상의 예산확보를 목표로 전면전에 돌입한다.
올해는 정부 재정지출 악화와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의 종료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도보다 예산 여건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초기 대응이 성과를

가른다"는 판단 아래, 중앙부처 예산편성 단계부터 김관영 지사를 필두로 한 지휘부 중심의 전략적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직접 방문해, 미래 신산업과 창업 생태계 관련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중기부 창업정책관과의 면담에서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복합창업공간을 구축하는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과 △해외 스타트업 본사 이전 시 국내 정착 및 성장 지원하는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과 수소경제정책관에게는 △수소 연소 엔진형 대형 트럭 기반 특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구축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수용가 전기설비 원격 점검 및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개발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기술 개발 △수소상용차·수소특장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엔진인 모빌리티·이차전지 등 전북의 미래성장엔진인 모빌리티·이차전지 분야 예산 사업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공공융합연구정책관에게는 △형상 정밀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기술 고도화(R&D) △국가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R&D) 등 바이오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R&D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중앙부처 예산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해당 사업들이 기획재정부 제출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지휘부와 실·국장급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예산 논리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군, 전북 출신 향우 공직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비 확보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 경제부지사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직접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사진=전북자치도>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모빌리티,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전략 투자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며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등 도정 핵심사

업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국가유산 야행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 백제 국가유산 야행

2025. 4. 18^금 ~ 20^일 18:00~23:00

백제왕궁(왕궁리유적)일원

사전접수 www.iksan-night.kr 문의전화 1577-0072 익산시 민원콜센터

윤수봉 도의원 “남계리 유적 국가사적 지정해야”

“완주군 천주교 순교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마땅”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완주1)은 지난 14일 완주 남계리 천주교 유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초남이성지권역 천주교유적 현지심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윤지충 바오로 등 순교자들의 유해와 유물이 발견된 완주군 천주교 유적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대단히 크다”며 국가사적으로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완주군 천주교유적지는 사회적 공공재로 봐야 하며, 한국의 종교·문화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효

율적인 관리·보존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사적 지정 이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연 등의 유적이 발견된 초남이성지 권역(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169-65 일원)에 대한 국가사적 현지심사에는 권요안 도의원과 심사위원, 국가유산청·전북도·완주군·천주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완주군 남계리 유적은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하는 역사적인 곳으로 학술적·천주교사적 가치가 높고, 평등과 새로운 사회를 추구한 신앙공동체의 실천적 사랑과 헌신이 녹여져 있다는 평가다.

2021년 3월 바우배기(순교자 무덤터) 정비 중 유해가 출토되어 완주 남계리 유적 발굴조사와 전북도 기념물 158호로 신규 지정했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4일 완주 남계리 천주교 유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전북자치도의회>

지난 1월에는 완주군이 국가 사적 지정 신청(완주군→전북특별자치도→문화재청)함에 따라 국가 사적 심사 중이

며 이후 지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권성동 “한덕수 국힘 대선 경선 불출마”

현역 의원 54명 연파장 서명 외부 인사 영입 추진 차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절반이 넘는 54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연파장에 서명을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당내 경선을 위해 외부 인사의 영입 추진등을 차단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경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다”며 대선출마를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임종명 도의원 “디지털문화유산 교육 활성화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학생들에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은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활성화 교육 실시 ▲디지털문화교육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설치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디지털문화유산은 현재와



임종명 도의원

미래 세대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김이재 도의원 “도의회 ESG 경영 실천 앞장서야”

‘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조례’ 대표발의

전북자치도의회 김이재 도의원(전주4)이 지난 제417회 임시회에서 ‘전북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를 대표발의를 통해 전북자치도의회가 솔선수범으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나 전북자치도청에만 ESG 경영 도입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도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며 “의회 운영에 있어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탄소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부 및 봉사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임법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의회조직 구성원간 평등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본격적인 노



김이재 도의원

력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ESG 경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ESG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의회는 ESG 경영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사회적경제·보건의료 분야 연석 현안 논의

지역경제 활성화·의료서비스 개선 정책 협력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4일 전북자치도당도당 회의실에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전북도회와 잇따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6시에 열린 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간담회에서는 김현철 집행위원장 등 25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농어촌 생활서비스 확대, 농어촌 유류지 및 시설 활용 마을공유자산 활성화, 농어촌 빈집 활용 분양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사업모델을 구체화해주시면 면밀히 검토 후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

했다.

또한 전국마을기업박람회의 전북 개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공식 건의하고 사회적기업박람회 지속 개최를 위한 법제화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전주에서 개최될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과의 별도 간담회 개최도 고려해 보자고 이원택 도당위원장이 제안했다.

이어 7시에 열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전북도회 간담회에서는 김현준 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해 간호법 시행에 따른 임상병리사 업무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는 없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균형 잡힌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당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물품사업 참여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



고 중앙 협회의 적극 대응을 권장했으며, 도 및 시군 행사 시 임상병리사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일정 확인 후 가능한 시기와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협회에서 요청한 지속적인 협력과 정례 협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신영대 의원, 퇴직 연금 세금혜택 강화법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퇴직금을 연금으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 안정적인 경제기반 마련 차원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10년 이하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10년 초과 시에는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

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 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3 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장기 연금수령을 택한 비율은 10.4%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대폭 낮춤으로써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사고 없는 봄 산행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켜 주세요!

산행전 날씨 확인등
필요한 정보수집

금지, 위험구역대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

구조요청시,
국가지법번호 활용

산행에 필요한 장비, 옷
식량등 준비물 철저히

타박상, 긁힘등
사고대비 구급약 준비

전북형 에너지산업 특화모델 ‘밀그림’

‘분산·신재생’ 에너지 육성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에너지 자립 지속 전략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1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전북지역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계 분야 전문가, 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2개 분야 용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산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전북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전략을 제시할



전북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1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예정이다.

첫 번째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용역’은 인프라 확충·제도개선·수요 기반 확대 등 중장기 목표설정과 유관

설계하고,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전략을 담을 예정이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용역’은 전북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정책방향과 확대 전략을 제시하는 과업을 담고 있다.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비전·목표·세부사업을 체계화해 기술보급, 이익공유, 발전 지구 지정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계획은 전북자치도가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군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현안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신제품 감자 ‘금선’ 도매시장 첫 출하

2025년 부안산 ‘금선’ 12톤
서울 가락도매시장서 첫선

올해 수확한 신제품 감자 ‘금선’ 12톤이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첫 거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알리기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청장 귀재한)은 지난 14일 서울 가락도매시장 경매장에서 ‘금선’ 첫 거래 홍보 행사(초매식)를 개최해 ‘금선’ 우수성을 알리고 도매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지원했다.

이날 초매식에는 농촌진흥청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부안군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생산자, 도매시장 유통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쥔 감자를 시식하면서 ‘금선’ 특징에 대해 의견을



올해 수확한 신제품 감자 ‘금선’ 12톤이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첫 거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알리기에 나섰다. <사진=농촌진흥청>

나섰다. 또 도매시장에서 제값 받는 감자 특징을 주제로 현장 전문 상담(컨설

팅) 시간을 갖고, 감자 경매를 참관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금선’은 분질 감자로 건물 함량이 높고 찌거나 삶았을 때 맛이 우수하다. 이모작 재배가 가능해 연중 출하할 수 있고, 수확 후 상온에서 60~7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해 저장성도 좋다.

이날 경매된 ‘금선’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서 생산된 것으로, 20kg 기준 최고가 6만 원을 기록했다.

‘금선’ 생산자들은 “신제품은 품질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유통 초기 판로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유통 현장에서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되려면,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중소·신규 기업 맞춤형 환경 관리·기술 지원

‘환경기술지원사업’ 발대
관리 취약 42곳 선정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 및 신규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환경기술지원사업’ 발대식을 15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관됐다.

이날 전북자치도와 관련 기관, 대기·폐수 분야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설명, 현장 애로사항 청취, 기술지원 방향 논의’ 등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진행됐다.

‘환경기술지원사업’은 환경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가와 1:1 매칭을 통해 무료로 기술 및 행정지원을 제공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 및 신규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환경기술지원사업’ 발대식을 15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는 제도다.

기술지원대상 사업장은 △기술지원 기간 중 지도·점검 면제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요령 지도 및 환경행정 정보 제공 △환경오염배출물질 오염도 검사

고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시설별 적정관리와 운영 효율을 위한 운전방법 개선 등 기술지원과 운영일지 기록,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등 행정지원을 병행해 사업장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4년까지 총 222개소의 사업장에 환경기술지원을 완료하며, 기업들의 환경관리 수준 향상 및 환경법규 대응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기술지원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과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사업장의 환경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15기 입교식 및 비전리더십 캠프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전북청창사) 15기 입교식이 열렸다.

15일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들은 전북 진안군 홍삼빌 호텔에서 “우리는 해낸단! 진심을 담아!”라고 힘찬 구호를 외쳤다.

이번 15기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들은 4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입교생들은 농생명·바이오부터 지능형 기계부품, 교육 플랫폼까지 다양한 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 전북의 미래 산업의 주역들이다.

입교식을 시작으로 15기들은 비전과 핵심가치, 창업에 대한 포부를 선언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 전북일보사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15기 입교식이 진안에서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윤석정 사장과 벤처기업협회 이인호 전북지회장, 진안군청 광동원 농산촌미래국장의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의 ‘성공 창업가의 공통점’의 특강을 통해

이번 입교식에서 진행된 비전리더십 캠프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비전트래킹, 성공스토리 공유, 선후배 네트워킹’ 등 서로의 꿈과 도전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

전북청창사는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7년간 349명의 창업가를 배출해 누적 매출 811억원, 신규 일자리 898개 창출을 마련해 전북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

중진공의 비전은 ‘청년 창업가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중진공이 든든한 혁신 성장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이다. 전북청창사 이준석 교장은 “15기 입교생들이 창업이라는 도전의 길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난관을 함께 고민하며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 경북 산불 피해 농가에 농기계 임대

안동·청송 등 5개 시군
임대농기계 33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지역 조속한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임대농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에서는 총 6,230대의 농기계가 소실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모든 시군과 협력해 트랙터, SS기, 관리기, 굴작기 등 33대의 임대농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전주시, 익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북의 안동시를 비롯해 청송군, 영덕군 등 5

개 시군이며 각 도내 시군은 자율적으로 농기계를 운송하고,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는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도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관리기, 경운기 등 소형 농업기계 점검과 수리를 위한 전문인력 16명도 현장에 지원하기로 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은 임대농기계와 전문인력 지원을 넘어 지방자치단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한우 성장 반영 메탄 배출계수 새로 만들어

장내 발효 메탄 4종 추가 개발
기존보다배출량 7%↓ 예상

농촌진흥청(청장 귀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

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의 아이피시시(IPCC)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한우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이 7%(186.7→17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이 지금까지 개발한 축산분야 배출계수는 총 21종이다. 이 중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는 한우 6종, 젖소 3종, 돼지 8종을 합해 17종이며, 이 밖에도 분뇨처리 4종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정현정 과장은 “이번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은 한우를 포함한 축산 탄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는 저탄소 사육관리 기술에 대한 감축 계수 개발도 함께 추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2025년 친환경 자원순환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친환경 자원순환 전북협의회(회장 김기동, 화원농협 조합장)는 14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전북협의회 소속 조합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친환경 자원순환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결산 및 2025년 사업계획(안), 신규회원 가입(안) (순정축합)을 의결하고, 지난 2년 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회장 김기동 조합장(화원농협), 부회장 김웅준 문제에 앞장서서 적극 해결하고 우수한 품질의 퇴비를 생산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이어 2025년 주요 추진사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추진 경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현황 등 고품질 퇴비의 생산·공급을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환 농협전북본부장은 “본 협의회를 통해 농·축협 간 다양한 정보 교환으로 농가에 고품질 퇴비를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농산물 생산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 친환경 자원순환센터가 환경영양 문제에 앞장서서 적극 해결하고 우수한 품질의 퇴비를 생산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생명 신상 간병보험, 전주농협서 전북 1호 가입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지난 14일 출시된 농협생명 신상품 ‘동주공제(同舟共濟)요양을안심해NH간병보험’ 전주농협 김태영 신용상 임이사와 나병훈 경제상임이사가 동시에 전북 지역 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간병보험은 노후 요양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보장 보험상품으로 인구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장기요양 및 간병 서비스에 대한 고객니즈 충족을 위해 출시됐다.

가장 큰 특징은 보장 범위의 확장이다.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까지 보장 범위가 확장됐으며 재가급여 중 이용률이 높은 주·야간 보호(데이케어센터)보장도 신설됐다.

간병인 보장도 강화됐다. 실제 간병인 사용 비용에 따라 연간 사용 금액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간편가입도 가능한데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장기간병보험 전용 간편가입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치매, 파킨슨병 진단이력이 있어도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입원·수술·추가검사 및 진단소견이 없는 등 다섯 가지 질문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도교육청, 추경 1506억 편성 학력·책임교육 강화

교육환경 개선 사업 879억 교육 현장 요구 선제적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도 본예산 4조5,732억 원 대비 1,506억 원(3.3%) 증가한 4조7,23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뒀다.

먼저 독서 생활화로 지적 능력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한 독서·

인문 교육에 62억 원을 투자한다. 아침 10분 독서 지원 학교를 80개교, 미래형 도서관 공간혁신 사업 지원 학교를 30개교 더 확대하고, 내 고장 바로알기 독서·인문 교육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수업혁신을 통한 학력신장과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학습 프로그램에는 95억 원을 편성했다. 전북형 AI서비스 구축에 50억 원, 에듀테크 활용 수업혁신 지원에 6억 원, 중위권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원, 초등 과정중심 평가 운영에 1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및 존중과 배려의 문화 다양성 교육 실현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는 19억 원을 편성했다.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확대

운영에 7억 원, 놀이공간 지원 사업에 7억 원 등을 반영했으며, 한국어 1:1 집중교육 3억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1억 원 등을 반영했다.

학교 안전관리 강화 대책 예산 20억 원도 추가로 편성했다. 늘봄학교 학생의 안전한 하교 지원을 위한 늘봄지킴이 운영 2억 원, 학교 내 CCTV 설치 지원 3억 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 완화와 학생 안전을 위한 보조 인력 운영 지원 3억 원 등이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는 879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270억 원,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163억 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 23억 원, 특성화고 여건 개선에 156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05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20억 원을 재원으로 하고, 부족한 세입 재원 980억 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50억 원을 활용했다.

이 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7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핵심과제인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안정적인 이행과 학교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국립 마이스터고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진 '제55회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사진=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고, 전북 기능경기대회 '쾌거'

금6·은6·동5 수상 우수기관 1위 선정

국립 마이스터고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임인현)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진 '제55회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북기계공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종별 금·은·동메달을 모두 수상, 우수기관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직종별 수상자는 △금형: 김중현(금), 장정민(은), 권지우(동) △기계설계/CAD: 소재민(금), 한규철(은), 양시환(동) △폴리메카닉스: 오주현(금), 김강민(은) △산업제어: 박준환(금), 소위진

(은), 송민성(동) △산업용로봇: 위민국(금), 이종현(은), 정무현(동) △프로토타입모델링: 홍준영(금), 최진우(은), 송정준(동) 등이다.

전북기계공고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해 직종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기능 인재들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전북대회 수상자들은 오는 9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 대표 선수로 참가해 전국에서 모인 숙련기술인들과 다시 한 번 기량을 겨루게 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현장정책기획단 운영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 정책적인 정책 제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현장 중심 교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2025년 전북교육 현장정책기획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균형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교사·행정직까지 직위별·지역별로 균등하게 참여하며, 총 152명으로 구성했다.

현장정책기획단은 정책 수립·실행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필요에 맞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10대 핵심과제인 △독서·인문교육 △수업혁신 △교과학습 강화 △특성화고 취업 △진로진학 △교육활동 보호 △ESG 실천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교육협력의 주요 교육 현안도 상시 접

점한다.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의견 수렴 정례회 △상시 정책모니터링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전북함께학교) 활성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2024년 운영된 현장정책기획단에서는 '서식편의점(서편제) 개발', '5학년 이하(초등) 전담 교사 배치', '통학버스 지원 일수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제안들은 2025년 정책에 반영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정책기획단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핵심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전북교육의 미래는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만큼 현장정책기획단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김제 백석초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백 년의 열, 천 년의 꿈' 주제

전북자치도 김제시 흥사동에 위치한 백석초등학교(교장 오경숙)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백 년의 열, 천 년의 꿈'이란 주제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지난 1925년 4월 20일 백석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해 오는 20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다.

이번 10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해 총동창회에서는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준비해 왔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기념일에 앞서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백 년의 열, 천 년의 꿈'을 주제로 기념식을 갖는다.

추진위원회는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탑 건립, 세계도시 이정표 설

치, '백석초 100년사' 편찬, 은사님 찾기, 동문 행사 등 기념식 행사를 준비해 왔다.

기념식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 행사는 기념탑 제막식과 재학생들이 함께한 100주년 기념 작품관람으로 시작되며, 2부 본행사는 학교 연혁 보고, 백석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100년사 전달식, 유공자 공로패·감사패 수여식, 기념사, 환영사, 주요 초청 내빈 축사, 비전 선포식, 재학생 축하공연, 교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백석초등학교는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근간의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다양한 특색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적으로 초등교육을 선도하는 가고 싶은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총 5,3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동문들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제20대 건설부장관과 제22대 한은총재를 지낸 박승(20회) 동문은 학교에 도서관을

신축해 기증하고, 1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백석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학교 시설 여건 개선과 후배들의 학습 지원을 아끼지 않아 농촌학교를 살려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DH그룹, 공동 발전 협력 나서

산학연구 추진단 공식 출범 국내 최초 제어기 회로 설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DH그룹(회장 이정권)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산학연구 추진단'을 발족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14일 오후 4시 전북대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산학연구 추진단 발대식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정권 DH그룹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은 양 기관의 비전 공유와 추진단 활동 계획 발표,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개발 현황 보고, MOU 서명식 등

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산학협력과 공동연구,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최초 제어기 회로 설계와 모터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버 보안 기능 개발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협업을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자율주행 센서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과 스마트 가전기술 개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 및 인공지능, 융합기술공학, 기계 및 시스템 공학, 산업공학, 소재공학, 빅데이터 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인재 개발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산학연구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환절기 건강관리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의 건강하게 보내세요!

① 손씻기 & 위생관리

감기나 독감예방을 위해
외출 후 손 씻기 철저히!



② 운동 & 충분한 휴식

가벼운 스트레칭 & 산책으로
혈액 순환 원활하게



③ 면역력 키우기

제철 과일 & 채소섭취 및
단백질 섭취로 면역력 강화



④ 수분 보충 하기

하루 1.5~2L 물 마시고
가습기로 실내 습도 유지



‘당신의 드립력’을 보여주세요! 군산 K-관광섬 신춘문에 이벤트

군산시가 전국의 ‘드립력 만렙 고수’들을 모집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군산 k-관광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신춘문에 온라인(SNS)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군산 K-관광섬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K-관광섬 다달이 이벤트〉중 두 번째로, 3월에 진행한 ‘이 섬 알고 있섬?’ 초성 맞추기 행사에는 총 3,527명이 참여하며 인기를 얻었다.

이달 기획 행사는 말도, 명도, 방죽도 3개의 섬을 주제로 신춘문예를 진행한다. 신춘문예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인 초단편 시 공모전으로 유쾌하고 재미있는 30자(띄어쓰기 포함) 이내의 짧은 시를 말한다. 유명한 신춘문에 작품은 모 배달업체 응모전에서 나온 시들로 “박수칠 때 떠나라 - 회-”, “짜장면 식하신 분? - 혼나야지-”, “오래 고와야 예쁘다. 너는 그렇다 - 설렁탕-”, 등이 있다.

군산 K-관광섬 인스타그램(gunsan_k_island/군산 k-관광섬) 팔로워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남기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푸른 익산 함께 만들어요”

익산 어린이들 환경 보호 캠페인

익산시 어린이들이 작은 손으로 푸른 익산을 가꾸는 의미 있는 활동에 나섰다.

시는 식목일을 기념해 15일 익산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연 국기즈어린이집 원장)와 중앙체육공원에서 지구 환경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35개소 영유아를 포함한 학부모, 교직원까지 5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영유아들이 일상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거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구 사랑 메시지를 전하고, 가정에서 준비한 커피 찌꺼기와 씨앗으로 ‘씨드밤(seed bomb)’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씨드밤은 각 어린이집 주변과 가정 근처에 심어져 앞으로 지역 곳곳을 푸르게 가꿀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축산업 정기점검

안전·위생 기준 강화

정읍시가 축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한 정기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19개 읍면동 담당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관련 법규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농가는 축산물 사육 기준을 비롯한 각종 시설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확인을 받게 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의 구비 여부 ▲등록된 사육시설에서의 실제 가축 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절차 준수 여부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장비 운영 현황 등이다.

익산시는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첨단 플라즈마 사업 본격

인재육성 플라즈마스쿨 운영

지역 융합 기업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첨단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및 산업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차세대 과학인재육성을 위해 ‘플라즈마 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지역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플라즈마 기술 지역 융합 R&D 및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와 공동 협력하고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 기술연구소’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플라즈마의 기반 기술부터 융복합 연구까지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 전문 연구기관이다.

플라즈마 기술은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국가 첨단 전략기술과 연관성이 높아 첨단 제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 플라즈마기술 지역 융합 R&D 및 기업지원사업: 신산업 창출의 발판

군산시는 이차전지, 수소, 소재·부품 등 지역 특화산업과 플라즈마 기술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 기술연구소

<사진=군산시>

융합 가능성에 주목하여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기업 맞춤형 지원과 신기술 개발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플라즈마 스쿨 운영: 미래 인재 양성

또한 군산시는 차세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플라즈마 스쿨’ 운영을 통해 교육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은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실험과 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실질적

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지역 경제와 신성장 동력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 구축

군산시와 플라즈마 기술연구소와의 협력은 단순 교육이나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 혁신적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플라즈마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장비 자립화를 위해 ‘AI기반 플라즈마 통합 솔루션 센터 구축’ 사업을 구상하여 플라즈마 기술의 요람이자 글로벌 대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철도도시 익산, 광역전철망 시대로 ‘성큼’

대광법 국무회의 통과

오는 22일 공포 10월 시행

철도도시 익산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전북 광역전철망 사업이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며 추진 궤도에 올랐다.

익산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전주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며 전북도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그동안 대광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전북권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권도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도시처럼 국가 주도의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익산시는 전북의 철도 교통 중심지로서 전주, 군산, 완주, 새만금 등 도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 광역전철망을 전략적으로 구상해왔다. 향후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는 물론, 향후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10월 대광법 시행에 앞서 전북도는 광역전철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연계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반영을 목표로 정치권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면 광역철도 조성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높아진다. 시는 이를 통해 도내 도시 간 접근성 향상,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철도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 인구 유입 등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대광법 국무회의 통과와 익산과 전북 전체 교통체계 개편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도와 정치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익산이 전북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국가유공자 주택 수선 지원

총 1억 원 예산 투입

국가유공자의 송고한 뜻 보답

정읍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 여건에 놓인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의 송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한 정읍시의 노력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08명의 접수를 받았다. 이후 연령과 유공자와의 관계, 가구 유형,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5가구를 선정했다.

올해는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400만원 이내에서 도배, 장판, 싱크대, 창호 교체 등 주택 내부의 수선을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읍시 담당자와 정읍시주거복지센터 직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해 각 가구의 실제 거주환

경과 요청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뒤, 맞춤형 수리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모든 수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어려운 삶의 현장을 살피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송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민간 함께 악취 저감 방안 모색

악취대책 민관협의회개최

과학적 분석 기반 종합계획수립

익산시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 악취 관리에 나선다.

익산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악취 문제 해결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는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공무원과 환경전문가, 환경기술인, 주민대표, 사업장 대표 등 15명의 위원

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추진한 악취 저감 정책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악취 데이터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악취 관리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효과적인 악취 대응을 위해 과학적 분석을 통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악취 상황실 운영과 악취방지시설 교체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민원실에 접수된 악취민원이 2020년 3,636건에서 2024년 1,455건으로 5년 만에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날 협의회는 과학적 분석 결과 얻어진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과 지역·시간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은 효율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익산시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악취 발생 지역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절기 고온으로 악취가 증가하는 5월부터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해 악취 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산불 피해 가구 주거환경 복구

민관 협력 무상 시공 지원

정읍시가 소성면 금동마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도배와 장판 무상 시공을 지원하며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일 정읍시가 정읍시자활기업협의회, 정읍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산불로 인해 주택 일부가 불에 타 그들을 피해를 입은 금동마을 4가구에 도배와 장판을 무상

으로 제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도배·장판 공사의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크지만, 이번에는 정읍시자활기업협의회 장우현 대표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가 전문 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지역 내에서 모범적인 협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 무역항 서명부 해양수산부 전달

군산시민 12만 1천명 염원 담아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지난 14일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에는 새만금특위 김영일 위원장을 비롯한 우종삼 부위원장, 송미숙, 양세웅, 서은식 의원이 함께 했으며, 서명부는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공식 전달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특위는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새만금신항은 군산시민의 생존권이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새만금신항은 군산시민의 생존권”이라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원포트(One-Port)’ 체

계의 무역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히고, 새만금신항의 ‘원포트’무역항 지정은 단순한 항만 정책을 넘어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에 전달된 서명부는 총 7권의 책자로 제작됐으며, 군산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의 항우까지 약 12만 명이 참여해 무역항 지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서명운동은 군산새만금법시민지킴이 범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부항운노조와 어촌계를 포함한 지역사회 여러 단체의 협력 아래 진행됐다.

다양한 계층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관내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서명에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의 전반에서 폭넓은 참여가 이뤄졌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의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실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위원회별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정읍시립요양병원,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등 9개소를 방문했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는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국립금세원 진입로 개설공사부지, 장금이파크 등 8개소를 방문하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 운영에 대하여는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전철환 의료서비스를 강조했고, 김명관교택에 대하여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월영습지와 야생산 등을 연계한 산림 훼손 없는 휴식 공간 조성을 주문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소하천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

황각·외두·신정 소하천 정비

익산시가 소하천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지역 내 소하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총 1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황각소하천 △외두소하천 △신정소하천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진행 중인 황각소하천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금마면 신용리 120번지에서 296번지에 걸친 약 0.7km 구간을 정비한다.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제방을 보강하고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해 현재 90% 가량 마무리됐다.

외두소하천은 총사업비 51억 원으로 성당면 두동리 1145번지에서 1175번지에 걸친 약 1km 구간을 정비한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4월 중 행정절차를 완료해 우기 전에 착공할 예정이다.

신정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69억 원 규모로 지난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낭산면 성남리 617·7번지에서 657번지에 걸친 약 1.1km 구간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침수 위험 등 재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타임스

Jhon Buk Times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김제시, 내년 국가예산 총력 대응

김희옥부시장,중앙부처방문 중자박람회등지원요청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15일 김희옥 부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쟁점들을 시작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 상 5월은 부처 예산편성 단계로 국가예산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는 김 부시장을 필두로 전 부서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 부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담당 부시장 및 담당 사무관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김제에 절실한 사업임을 심도있게 설명하고 건의했다.

이번 방문의 주요 건의 사업은 △ 글로벌 매력강화를 위한 新광역관광개발사업 반영(국가명승광사해, 만경능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 중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K-종자의 세계화 2026 국제중자박람회로, 소관부처에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울초부터 시는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예산 편성 이전 단계인 2~3월 부처 동향



김제시가 15일 김희옥 부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쟁점들을 시작했다. <사진=김제시>

파악을 위한 부서 출장이 이뤄졌으며, 출장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국가 예산 신규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2일부터 3일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분석 및 사업화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총출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4~5월중 부처단계 일제출장을 실시한 후 5월 국가예산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시장은 지난 보고회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고, 처음에는 논리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은 끈질긴 사람이 가져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김제시 중점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김제시 미래 성장 동력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끈기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각 사업별 필요성, 타당성, 당위성 등에 대한 논리를 보완해 4~5월 부처단계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기획재정부 및 국회, 지역정치권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제22회 고창 청보리밭축제, 오는 19일 개막

5월 11일까지 30만평 규모 공음면 학원관광농원서 열려

고창청보리밭축제장은 지금 청보리가 겨우내 얼어있던 대지를 녹이고 초록빛 얼굴을 내밀고 있다. 30만평의 광활한 대지에 초록빛으로 물들인 청보리가 관광객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오는 19일부터 5월11일까지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를 주제로 고창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열린다.

올해로 22화제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전국 최초 '보리'를 주제로 한 경관농업 대표 축제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가 후원한다.올해는 드넓은 청보리밭을 무대로 촬영된 드라마와 영화 속 장면을 재현한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영화·드라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오는 19일부터 5월11일까지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를 주제로 고창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열린다. <사진=고창군>

마 속 장면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로, 볼거리와 먹거리 등에서 아주 특별한 추억

을 선사해줄 것”이라며 “축제장은 물론 다수가 모여드는 장소도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에 군민과 관광객이 맘껏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경기침체 일반숙박업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운영 조례 개정 3년간 정기조사 제외 “생활인구 증가 도움 될 것”

부안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축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군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위축된 숙박업 유치를 위해 '부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을 지난 3

월 25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공포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관내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자는 신축일로부터 3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숙박업의 경우 일반 건축물에 비해 건물 시가표준액이 가중돼 납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 일반숙박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반숙박업까지 포함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규칙 개정으로 관내 숙박 시설 신규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에 숙박시설 공급이 늘면 관광객 유치 및 생활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올해 247명 소상공인 18억 지원

시설개선 등 6개 분야 실질적 경영개선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5일 시청 2층 상합실에서 '2025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총 247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18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기침체와 소비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 6개 분야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개선과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지역 내 창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민생 활력의 원천이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 본격 운영

오는 18일까지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20명 모집

고창군이 고창갯벌의 보전가치 확산을 위한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는 유아와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국내외 대표 유산 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고창갯벌 야기 새 교실(유아 생태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 고창갯벌 어린이 레인저스 교실(청소년 갯벌유산 지킴이 양성) △고창갯벌 키퍼스 교실(고창갯벌 보전 관리 인식증진 교양강좌) △고창갯벌 시니어 교실 △고창갯벌 바다쓰레기 줍기 대회 등이 운영된다.

오는 18일까지 ‘고창갯벌 어린이 레인저스’ 모집을 시작으로 유산

학교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참가 아동이 고창갯벌의 생물자원과 생태환경을 관찰하고, 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생태교육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총 4회차로 운영되며, 생태 모니터링, 플로깅, 보호종 관찰, 서천갯벌 견학, 수료식 등의 일정이 포함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아동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고창갯벌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은 온라인(구글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상공회의소, 지역경제 발전 상생·협력 행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경제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는 15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제상공회의소 제1회 의원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제상공회의소 의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인 만큼 개회식에서 설립취지와 추진경과 등을 보고했으며, 본회의에서는 상공회의소를 이끌어갈 초대 회장, 부회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며 운영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또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 및 기타사항을 심의하며 김제상공회의소의 향후 비전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제상공회의소는 이번 의원총회 이후 오는 5월말까지 설립등기를 마치고 6월 중 김제시 지평선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4층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총회 결과 초대회장으로 김윤권 참고를 대표가 선출됐으며, “김제상공회의소가 지역 상공인의 든든한 구심점이 돼 지역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상공인들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된 뜻깊은 이야기들이 우리 지역경제의 밝은 내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NH농협 고창군지부-선운산농협, 환경정화활동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옥)은 15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농협고창군지부와 선운산농협 임직원 및 선운산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40여명이 참여해

비슷한 영농부산물 등을 수거하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미정 지부장은 “농협은 ‘영농後 환경愛’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인 농촌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해경, 수상레저활동 최다 신고자 ‘부활왕’ 선정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수상레저 활동 최다 신고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24년부터 수상레저활동 신고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부안 수상레저 활동신고 왕(약칭 부활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수상레저기구 활동 신고가 자유 집합가 아닌,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해양 안전

문화를 널리 퍼뜨리는 데 있다.

참여 대상은 부안·고창 지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원거리 및 근거리 활동 신고자들이다.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나 파출소를 방문해 가능하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기구 활동전,연료 및 배터리 점검,고무 튜브 압력 확인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활동하는 수역의 수심과 조석 등 해양 환경에 대한 숙지와 음주운항 금지를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오는 10월까지 위생해충방제 강화...감염병 발생 최소화

부안군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환경친화적 위생해충방제사업을 강화한다.

군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하며 집중 방역은 오는 5월부터 부안을 시가지와 취락지, 밀집주택지 등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 2~3회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방역소독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유충구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율방역용 소형 분무기 대여와 약품 지원 사업도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자율방재단, 마을 이장, 마을 자율방역단,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 대표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해충과 일본뇌염을 유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빠르게 발견되고 있다”며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3개 읍·면 지사협 위원 역량강화 순회교육

고창군이 지난 14일 오후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3개 읍·면(고창읍, 고수면, 부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고창읍(위원장 임진용), 고수면(위원장 서학용), 부안면(위원장 이상수) 지사협 위원 90여명이 참여했다.

군은 4월 중 읍·면 권역별로 5차례에 걸쳐 지사협 역량강화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사협의 사업성과 공유와 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따른 지사협 위원들의 역할과 책임, 지역사회조직화와 실천사례 등의 설명이 이뤄진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 등 현장 중심의 복지실천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조직으로, 주민 곁에서 총출발 복지망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창군은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찰칵! 나의 청춘프로필 사업’을 통해 14개 읍·면 어르신들에게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남기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과 관을 잇는 가교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중심 복지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5차에 걸쳐 추진하는 순회교육을 통해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이 더욱 강화돼,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가 한층 더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글로벌 청년 워킹홀리데이 내·외국인 청년 20명 참여

부안군은 지난 14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제1기 부안 글로벌 청년 워킹홀리데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내국인 청년들과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 온 외국 청년 등 총 20명이 참여해 부안의 자연과 문화, 일자리 자원을 체험하고 로컬라이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7박 8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글로벌 청년 워킹홀리데이는 지역 관광 및 문화 체험, 로컬기업 탐방, 일자리 및 창업 자원 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부안에서의 삶을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군은 이번 1기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총 80여명의 국내·외 청년들의 체험 과정을 담은 영상을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부안에서 경험한 로컬라이프가 스스로의 삶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주)코빅스, 그린바이오·ESG 상생

민·관 ‘지역 브랜드’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화장품 전문기업 ㈜코빅스와 함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해 ㈜코빅스 김중회 대표, 신영민 총괄이사 등이 참석해 상생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역 대표 브랜드의 기획 및 마케팅 협력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 △사회적인 사회공헌 활동 전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상생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 축제 참여와 복지단체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ESG 경영을 확산하고, '남원



남원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화장품 전문기업 ㈜코빅스와 함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남원시>

형 킷 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과 연계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코빅스 김중회 대표는 “지역 기업으로서 남원시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뜻깊고, 큰 힘이 된다”며, “남원시의 믿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

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약에 앞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코빅스는 총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700만 원 상당의 1,580종 물품을 기탁하며, 지역 대표 축제에 힘을 보탤다. 또한, 남원시 사회복지재단에도 2,100만 원 상당의 삼푸 851개를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실천 기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다자녀 가구 양육비 지원 확대

기존 ‘셋째→둘째’ 확대 조정 양육비 연차별 지원 추진

완주군에서 둘째 이상의 다자녀가구부터 양육비가 지원된다.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했으며, 조례 개정의 핵심은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표 발의한 심부건 의원은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 명칭과 관련 용어도 ‘다자녀가정’에서 ‘다자녀가구’로 변경해 명확성을 높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다자

녀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했다.

특히, 2025년 8월 1일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조례의 핵심내용은 9세 둘째매 이상부터 ‘26년 9세~8세, ‘27년 9~7세, ‘28년 9~6세까지 매년 확대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대학 신입생 ‘진학 축하금’ 200만원 지급

대학 신입생 185명 선정 생활·학업 안정 실질적 지원

순창군은 (재)순창군육전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를 통해 최근 대학 신입생들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은 순창군이 장학회에 사업비를 출연해 추진

하는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학 신입생의 초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학회에 따르면, 올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89명이 신청했으며, 중복 지원자 등을 제외한 185명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특성화고 등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더욱 많은 신입생들

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둔 정 씨는 “올해 둘 다 대학생이 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이 많았는데, 순창에서는 축하금뿐 아니라 생활지원금도 지원해 주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최영일 군수는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 벤치마킹 전국 확산

경기도청, 완주군의회 방문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지역 복지정책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최근 완주군의 회를 방문,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과 면담을 갖고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과 운영 방식, 주요 성과 등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완주군 김태식 기업지원팀장,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 박종광 전문관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완주형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완주군의 선도적 사례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정책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경기도 내 산단 지역에서도 아침식사 제공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완주일반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지역 복지정책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완주군>

근로자들에게 출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집중도 향상은 물론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 사업의 기획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현장 의견 수렴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정책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왔다.

한편,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완주군의회와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가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한 성과이다.

완주군의회는 전주고용센터의 ‘기업 도약보장패키지’와 연계해 고용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증진,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은 오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 변에서 ‘수상레저기구 체험교실’을 무료 운영한다. <사진=순창군>

순창 봄나들이, 카약·하늘길 ‘당일치기’로

섬진강 카누·카약 체험교실 19일부터 주말 무료 운영

순창군이 봄기운 가득한 섬진강에서 특별한 물놀이 체험을 선사한다.

오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순창군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 변에서 펼쳐지는 ‘수상레저기구 체험교실’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섬진강수상레저연맹이 주관하는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은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래프팅 가이드의 수상안전 및 노 젓는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카누·카약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체험 장소인 유등면 화탄마을은 순창의 보물이라 불리는 용골산 하늘길과 차로 단 15분 거리에 위치해, 주말 나들이객들에게 일석이조의 매력을 선사한다.

체험 신청은 전화(섬진강수상레저연맹 063-652-6520)를 통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시간대별로 탑승인원 20명, 일 최대 100명 이 이용할 수 있고, 예약인원 미달 시에는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 운영한다.

한편, 순창의 섬진강은 물이 맑고 물살이 세지 않아 카누, 카약을 즐기기에 안심맞춤인 곳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4,927명이 수상레저체험에 참여하는 등 순창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곤충산업 사육농가 현장 목소리 청취

농가 소득 창출 방안 모색 월례 농가협의회 추진

남원시는 지난 11일 관내 곤충사육농가 중 9개소를 방문, 곤충사육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관내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갈색거저리, 동애등애, 흰점박이꽃무지, 쌍별귀뚜라미 사육농가를 차례로 찾아 곤충사육 농가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며 사육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 곤충사육 농가가 사육 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솔직히 나누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와 조성 이전까지 농가소득 창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부분 농가가 개별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판로 확보 및 홍보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체계 기반 확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남원시는 매월 1회 이상 농가협의회를 통해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지역 행사 등을 활용한 부스 운영과 관련 사업 예산 확보 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곤충산업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통해 산·학·관·연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생산 체계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와 소비자 인식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기능성 발굴 연구도 지속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소양면민의 날 2천여명 참석 ‘성황’

면민 화합·자금심 고취

완주군 소양면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제22회 소양면민의 날 행사가 15일 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상을 수상한 조영진씨를 비롯해 완주군의장상, 면민의 장 등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주민 12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소양농협, 호남제일신협 등 관내 유

관기관에서의 협조도 이루어져 외곽, 읍사탕 등 먹거리와 한지체험과 같은 체험부스 운영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김명곤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진안·순창군수 다음 타자 지명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자’는 선언문을 주제로 진행되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최경식 시장은 황인홍 무주군수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어 진안군수와 순창군수를 다음 참여자로 지명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재해복구 1,249억 투입 우기 전 완료 위해 ‘총력 대응’

완주군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농작물, 농경지 등에 대규모 사유재산 피해와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하천 등 217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총 1,249억 원의 국·도비와 군비를 투입해 217건의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13개소를 완료하고, 100개소는 추진 중이며 4개소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이다. 군은 우기 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장선천, 괴목동천, 성북천 3개소의 개선복구사업 역시 신속하게 설계를 추진 중이다.

또한, 우기 전까지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필요시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는 등 재해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중고교 스포르테니스 선수단 순창 양지천 걷기 체험 ‘힐링’

순창군이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 ‘제61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스포르테니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중·고등학교 선수단 300여명을 대상으로,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양지천을 체험하는 경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순창군과 한국중고등학교스포르테니스연맹이 협력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잠시 경쟁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갖고,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선수단이 순창읍사무소를 출발해 양지천 꽃잔디 식재 구간을 따라 걷는 코스로 구성됐다.

행사 장소인 양지천은 순창군이 자랑하는 자연경관지로, 봄철을 맞아 꽃잔디, 톨립, 수선화, 벚꽃 등이 어우러져 화사하고 다채로운 색채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과수 저온 피해 약제 추가 지원…선제적 예방 조치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최근 기온 저하로 인한 과수 저온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저온 피해 예방 약제에 대한 추가 지원(9천만원, 570ha)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당초 계획한 지원 예산 외에 예비비를 편성해 추진되는 것으로, 과수 농가의 이상 저온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경감과 수정을 증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시는 지난달부터 저온 피해 우려가 있는 과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차 약제 지원(9천만원)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들어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과 냉해 특보가 이어지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 하기로 결정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국도21호선 순창 개운치터널 30일까지 양방향 전면통제

남원국토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방재시설 보수공사로 인해 순창군 삼치면 방산리 국도 21호선 개운치터널 4.3km 구간이 이달 30일까지 일시적으로 교통이 통제된다.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운치터널 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되며, 우회도로는 방산교차로~백성교차로(8.6km)로 약13분이 소요된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과 신호수를 배치하고, 도로전광표지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통제 사실과 우회도로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재경장계초등학교 총동창회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원 기탁

장수군 장계면은 서울 배뉴비안에서 진행된 장수군 재경장계초등학교 총동창회(제21대 회장 박준기)에서 장수군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박준기 회장은 “고향 장수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고민해 왔는데 고향 사랑기부금을 전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전국의 장수군 출향인 여러분께서도 고향 사랑기부의 좋은 취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조장호 면장은 “소중하게 마련해준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주민 복리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오는 17일 군청 광장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임실군이 오는 17일 군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한 중증 수혈 환자 증가와 헌혈자 감소에 따라 혈액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된 현 상황에서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에 사랑 나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4회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안정적 인 혈액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헌혈은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헌혈 참여자는 혈액검사를 통한 건강 상태 체크와 헌혈증서 발급, 자원봉사 활동과 상시학습 4시간 인정 및 소정의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혈액의 양이 부족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공무원 및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마을로 가는 터링교실’ 어르신 건강 증진 활기 불어넣어

임실군이 신덕면 기초생활자점조성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일환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마을로 가는 터링교실’을 운영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평생배움학교’에서 양성된 터링 지도자 14명이 신덕면 활동가로 임명돼 마을로 가는 터링교실 강사로서 진행을 주도했다.

터링은 전통 놀이와 현대 스포츠를 융합해 개발된 뉴스포츠로 참여자 중심으로 재미를 더해 만들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며 단순한 운동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과 일상에 활기를 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된 스포츠이다.

신덕면은 양성된 활동가들을 배후마을 활성화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 활용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자립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된 전문 활동가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산림녹화 자료 유네스코 등재

중평마을 산림녹화기록물 기후변화대응 등 본보기 “세계적 가치” 인정

진안군 성수면 도토리 중평마을의 산림계 자료가 포함된 ‘산림녹화기록물’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해 인류가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세계기록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기록물’은 6·25전쟁 후 황폐화된 국토에 민·관이 협력해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이뤄낸 산림녹화 경험이 담긴 자료들로,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논점에 본보기가 되는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결정된 ‘산림녹화기록물’은 공문서·사진 등 총 9,619건이다. 이중 진안 중평마을에서 이웃 점촌마을과 함께 공동산림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만든 마을공동체인 산림계(山林契)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돼 있다. 이들 자료는 산림계의 운영 규



진안군 성수면 도토리 중평마을의 ‘산림녹화기록물’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 <사진=진안군>

칙을 적은 정관(定款)과 그 운영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수계기(修契記)로, 2006년 마을회의를 통해 진안의 역사문화를 종합해 전시·연구하고 있는 진안역사박물관에 기증돼 보존·관리되고 있다.

특히 중평마을의 산림계 수계기에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산림계 조직의 운영내용이 담겨 있어 그 역사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계기에는 마을 공동산림의 보호와 이용을 위해 조직된 공동체인 산림계에서 마을 주민들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연료용 딸감과 퇴비 재료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산림의 보호를 위해 몰래 나무를 베는 등계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의 처벌을 내리는 기록 등이 확인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중평마을 산림계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지역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이를 연구·보존하고 있는 지역박물관의 역할이 다시 한번 재조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규명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19개 항목 보장

자연재해사망·폭발·화재 등 최대 3천만원 중복 지급 가능

장수군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 2018년도부터 시행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해 주고 있다.

2025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매년 갱신되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NH농협손해보

험에 문의 청구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안전한 장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맨발걷기 길 개장

2025 임실방문의해 숙박비 할인 성수산 자연휴양림 등 숙박 인기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담은 임실군의 대표 명산인 성수산 왕의 숲에 자연과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맨발 걷기 길이 개장했다.

이번에 조성된 맨발 걷기 길은 총연장 1.15km 거리로 2구간의 황토길로 조성돼 맨발로 걷는 즐거움과 건강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성수산은 예로부터 고려 태조 왕건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개국에 대한 전설이 깃든 신령스러운 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왕의 숲 맨발 걷기 길’은 역사적 의미를 품은 자연 속에서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왕의 숲 맨발 걷기 길은 연중무휴로 가족 단위 방문객, 등산객, 건강을 위한 걷기 운동을 즐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기존 개인 소유의 성수산 자연휴



양림을 매입해 노후 시설물들을 철거 후 산림휴양관 본관 신축 및 별관 리모델링을 추진, 지난해부터 정식으로 개장해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2025 임실방문의해를 맞아 추진 중인 숙박비 할인으로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숙박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고려 왕건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왕의 기운이 담긴 성스러운 산 이곳에서 숲길 따라 물길 따라 황토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조성했다”며 “임실방문의 해인 올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성수산의 좋은 기운을 받아,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70만원 지원

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2024년 기준)의 소상공인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임재영 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용카드 등 당초 30만 원이었으나 소상공인 안정 기금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40만 원)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과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임재영 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용카드 등 당초 30만 원이었으나 소상공인 안정 기금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40만 원)해 보다도 지원 금액이 20만 원 증액된 만

큼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33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외에도 △카드형 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및 이자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급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사랑고향사랑 군민홍보단 위촉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회단체 8개 단체 참여 SNS·현장 홍보 주력

무주군은 지난 15일 무주사랑고향사랑 군민홍보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군민홍보단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됐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마경옥),와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회장 이순희), 무주군 이장단협의회(회장 백현기) 무주군 체육회(회장 송재호) 등 8개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무주사랑고향사랑 군민홍보단원들은 “고향사랑기부금이 고향 발전과 군민 행복을 도모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사랑고향사랑 군민홍보단은 오는 2027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 확산 △SNS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여 유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이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액은 7억 1천9백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사업 발굴 공모제를 진행했으며 최상의 답례품 제공을 위한 상품 발굴과 품질 및 위생, 안전 배송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역량강화

진안군은 15일 오후 진안홍삼다목적 복합센터에서 농공단지 협의회 임원진, 농산촌미래국 팀장급 이상 30여명을 대상으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진안군은 2024년부터 농산촌미래국 팀장급 이상 및 관내 농공단지 평균 종사자 5인 이상 입주기업 24개팀에 대해 1대1로 매칭을 추진했다. 이에 올해까지 총 65건의 기업에로사항을 접수해 38건을 해결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마케팅본부 한동희 본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전담제 추진 시 안

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공유했다. 최근 진안군은 농공단지정책자 제작보급, 노후농공단지 환경개선공모추진(128억원), 단체장과 함께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정례간담회 추진, 다목적복합센터 개관을 통한 근로자 복지환경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장서고 있다.

진안군청 농산촌미래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됨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제6기 지사협 위원 위촉식

장수군은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장수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본 위촉식은 7명의 위촉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및 민간위원장 선출, 위원들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 민간위원장은 나금례 장수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호선으로 선출됐다.

‘제6기 장수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

체’는 민·관의 협업체 기구로, 장수군 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등을 심의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민·관이 함께 우리 군의 복지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견교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3개 지구 1,476필지 지적재조사 설명회

진안군은 15일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3개 지구(1,476필지) 진안읍 군상4·7지구(우하1·6동) 903필지, 백운면 반송1지구(원반송, 두원마을) 573필지로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및 각 마을회관에서 실시한다.

지난 11월에는 진안읍 군민자치센터와 백운면 원반송, 두원마을회관에서 1

차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다.

진안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이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토지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기존 경계선을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군 청소년들, 서울모빌리티쇼 탐방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이 최근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25명과 함께 서울모빌리티쇼를 탐방했다.

이번 탐방은 청소년들에게 최신 모빌리티 기술과 트렌드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이동 수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탐방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전시 부스를 돌아보며 다양한 기술과 차량을 직접 보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었다.

/원주=김명곤 기자

김제시 축산 단체, 기부 미담 이어져 훈훈

지역랜더링업체 5개소 성금 2,500만원 기탁

김제지역 축산 단체의 훈훈한 기부가 이어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역 랜더링 업체 5개소가 이웃돕기 성금 2,5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에 참여한 업체는 한국방제(주), ㈜우리축산방역, 우성축산, 그린맥스, JS그린 등으로 이들 업

체는 지난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교육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축산단체의 뜻깊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금은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과 관내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15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역 랜더링 업체 5개소가 이웃돕기 성금 2,5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김제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경남·경북지역 산불피해 성금 기탁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경태)는 최근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지역 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1천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경태 회장은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빠른 일상 복구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위기 상황에 연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익산 청소년 나눔의 바자회, 수익금 372만원 전달

원대병원 난치병 환우 지원

15일 청소년나눔의바자회 수익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성길)이 주관하는 희귀성 난치병 환우 돕기 프로그램 “청소년 나눔의 바자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익산관내 초, 중, 고, 대학교 19개교와 삼동청소년회 산하 시

설 전국 청소년시설 5개 기관 310명의 청소년들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부스를 운영 직접 운영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진행으로 바자회 물품 등을 판매했고, 총 수익금 372만원을 아하!데이 제전위원회(제전위원장 민성호)에 전달했다. 이번 수익금은 원광대병원 원 희귀성 난치병 환우 돕기에 전액 쓰여질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딸기 따며 웃음꽃” 정읍시가족센터 딸기 체험 행사

정읍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가족 간 유대감을 키우는 품앗이 활동의 일환으로 딸기수확 체험행사를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참여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딸기를 직접 수확하고 함께 맛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딸기를 따며 너무 즐거웠고, 가족이 하나 되는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아이들 또한 딸기를 직접 따보며 자연의 소중함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 은파공원, 해양경찰 체험행사

해경이 오는 19일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대국민 수상안전 체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국민 수상안전 체험행사(이하 행사)는 해경과 한국해양구조협회(전북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국민 참여형 행사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는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식전 공연과 공식 행사, 수상 훈련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해양경찰 장비 체험부스(경비함정 만들기, 수상보트 탑승 체험 등)와 견학부스, 시연부스 등 여러 테마로 나눠 진행되며, 해경 헬기가 날아와 호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시연도 계획되어 있다.

참여방법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장에 방문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어린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은 어린이 체험부스에서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NH농협 익산시지부,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탁

익산시는 NH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진현욱)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7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쌀을 익산시에 기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산불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농협 익산시지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성금과 쌀은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진현욱 지부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욱 익산시장은 “NH농협 익산시지부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과 쌀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신천지 군산교회, ‘시비 없는 행복한 삶’ 강연

누구나 바라는 ‘행복한 삶’을 위한 재치 있는 강연이 군산에서 펼쳐졌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와 군산교회(담임 오현택·이하 신천지 군산교회)는 지난 12일 ‘시비(12) 없는 행복한 삶’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을 진행한 오현택 담임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를 넘는 방법들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며 “행복한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이 신천지예수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SGI서울보증 광주호남본부, 군산시에 성금 1,000만 원 전달

SGI서울보증 광주호남본부(본부장 조지영)가 15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하나로 군산시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나운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00만 원씩 전달되며, 시설별 실정에 맞게 무료급식소 운영비, 시설기능보강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지영 광주호남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

탄소발자국이란? 사람이 걸을때 땅에 발자국을 남기듯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의생산,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의 총량

01. 사용하지 않는 전등끄기

02. 물 절약 하기

03. 음식 남기지 않기

04. 분리배출 하기

05. 손수건 사용하기

06. 일회용품 줄이기

07. 플러그뽑기

〈一事一言〉



‘12.3 윤석열의 난’ 진압, 이제 야당과 시민의 시간(1)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그리고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현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기까지 122일의 시간을 우리는 ‘12.3 윤석열의 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로 1차 내란이 시작됐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속한 대처와 해제 결의로 실패했으나, 그 이후 국민의 힘의 지도부의 지속적인 윤석열 복귀 시도, 서부지법의 폭동,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재구속 포기 등으로 2차 내란은 지속됐다. 그러나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난은 일단 실패로 끝났다.

이번 윤석열 난으로 한국은 여전히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임이 드러났지만 단시간에 그러한 쿠데타를 시민의 힘으로 진압해 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로 1987년 민주화의 성과인 87년 헌법, 특히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행사, 주권자의 의지를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 위에 군림하는 비선출 권력인 행정부, 검찰, 헌재 등의 제도적 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동안 축적된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동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었다. 윤석열 집권 후 매우 촛불 시위를 진행했던 시민단체, 당일 국회로 서둘러 집결한 민주당과

보좌관들, 대통령과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국회 투입 병사들, 남대령 한 남동 안국동에 집결하여 추운 밤을 꼬박 새면서 탄핵을 촉구했던 시민의 절절한 소망이 비상식적인 1, 2차 내란을 진압한 동력이었다.

어제 우리는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현재의 선고를 보며 크게 환호하고 안도했다. 그러나 이 내란 국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한국사회의 온갖 비상식적이고 어두운 점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다. 우선 국제적인 환경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한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1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했던 미국에서는 선동자인 트럼프가 모든 사법적 결정을 압도하고 작년 말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 1기 집권기보다 더 노골적인 파시즘적 통치를 구사하고, 유럽과 전 세계의 국우세력을 지원한다. 트럼프와 그의 최측근인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부통령인 밴스는 그냥 행동만으로 히틀러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다시 등장한 히틀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헌법과 법치의 파괴, 의회 활동 몰살, 인종주의, 혐오, 언론탄압, 노골적인 친자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122일 동안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했던 한국 사회의 온갖 불법적이고 비상

식적인 일들, 특히 윤석열의 집권과 통치의 기반이었던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 권력집단, 서초동 권력(검찰), 강남권력(재벌), 그리고 이번 윤석열 복귀를 위해 모든 지면을 할애하여 사력을 다한 <조선일보>와 거의 모든 경제신문 등 언론권력이 간재하기 때문이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극우세력, 전광훈 손현보 등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 그리고 즉 계엄을 찬성하거나 탄핵을 반대한 약 30% 시민들은 미국에서 트럼프를 복귀시킨 바로 그 극우 그리고 잠재적인 파시즘 세력이고, 이들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온갖 논리를 동원하여 정권의 교체에 반대할 것이고, 실사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처음부터 그 정권을 흔들며 대다가 약점이 발견되면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윤석열의 난이 주로 윤석열 개인의 망상과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이 122일 동안 지속된 데는 그러한 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사회적 기반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이제 군부가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움직이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에 드러난 한국 최고 권력엘리트들의 반헌법, 반법치, 비상식적인 행동은 앞으로도 재연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인용은 일단 내란의 진압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다가올 수도 있는 내란, 즉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을 시도하는 일을 막는 일과, 한국의 3대 권력 집단이 군부없는 쿠데타를 감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윤석열이 지난 12월 3일, 황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쿠데타를 감행한 동기는 더 밝혀져야 하지만, 그 동안 드러난 수사기록을 보면 그는 오랫동안 이러한 국가 긴급권 행사를 기획한 것 같다. 특히 지난 3년 간의 윤석열의 통치방식을 되돌아보면 윤석열은 검찰 출신 엘리트로서 권위주의, 안하무인, 속임수 구사,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고, ‘전두환의 쿠데타를 선망한다’는 사적인 발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군주주의 세계관과 20세기 파시즘과 군사주의를 흡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이나 취임 초기에는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 논리나 이승만식의 반공자유주의 정도의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제도정치를 일거에 뒤엎을 정도의 사고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권 광역교통망 새로운 장 열린다

전북자치도의 오랜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한 교통법령 개정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으로 짜여진 광역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비수도권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특히 이번 의결로 전주시 등 전북권이 법적으로 ‘대도시권’과 동등해짐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는 통합 교통망 구축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북 교통정책의 일대 도약을 의미한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재정 의하고 그에 맞는 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지방에 부여한 것이다. 전주·완주·익산·김제 등은 그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했음에도 실질적인 광역교통체계에서는 배제돼 왔다. 하루 40만 건이 넘는 통행량을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정부의 계획과 예산 지원에서 제외됐던 현실은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률 개정으로 전북은 광역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예컨대 KTX익산역 환승센터 건립은 지역 교통의 허브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전주 효자동과 김제·완주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확장 사업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물류 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교통망이 정비되면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더불어 기업 유치에 위한 산업 입지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원활한 교통체계는 기업의 물류비를 줄이고 인력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관광객 유입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결국 교통망 확충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 유출 방지에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대도시권 지정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광역교통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교통계획 수립으로 대응해 나가기 한다. 교통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향후 성과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제5차 시행계획’ 수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실제적인 교통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한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된다.

이번 정부의 대광법 의결은 전북 교통의 지형을 바꾸는 제도적 패가이며 수도권 중심의 국가 정책에 균열을 내는 상징적 사례다.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 속에서 전북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이번 성과는 도민과 정치권, 행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다. 우리는 이 기회를 지역발전의 도약대로 삼아 미래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문화재열전



원동향약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기록유산, 서원향교문서
- 지정일 - 1994년 8월 10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남원시 주천면

외평2길 16

▲오늘의시

나무를 위하여 / 신경림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랴
불어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랴
있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를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짝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은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곳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밧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추린 나무들이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펴지어 설 나무들이아

시인 약력 :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동국대 영
어문학과를 졸업하고 1955년 ‘낫날’,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이후
‘원격지’, ‘산유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

표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
작가상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연주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전북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전북타임스신문!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신문구독 282-9600

제20주년 군산콩당보리축제 보릿고개의 추억에서 가족의 웃음소리로

봄날 반짝거리는 초록빛 청보리밭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농업축제가 축제의 향연을 준비하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군산시 미성동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군산콩당보리축제'는 농업과 지역문화를 결합한 대표적인 행사로, 봄의 따스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콩당보리 20주년, 두근두근 스무 살>이라는 주제로,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다.

◆ 지역 농업의 소중한 자산, 콩당보리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다

'아아 뛰지마라 배 꺼질라 가슴시린 보릿고갯길'

가수 진성의 보릿고개란 노래의 첫 구절이다. '보릿고개'는 한국의 불철 기근을 가리키는 말로 춘궁기·백령기로 불렸다.

콩당보리 축제의 상징인 흰찰쌀보리는 이런 아픈 추억을 가진 지역 농업의 소중한 자산이다.

군산시는 흰찰쌀보리를 지리적표시 제49호로 등록하고 판로 확대를 위하여 미성지역 농민 중심의 축제를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군산콩당보리축제'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군산콩당보리축제'는 흰찰쌀보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를 더해갔다.

도시와 농가 소통의 장으로, 농업과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군산의 대표 농업축제가 어느덧 스무 해를 맞게 됐다.

축제의 위상만큼이나 흰찰쌀보리의 대접도 달라졌다.

비타민 B1, B2, 니아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가용성 식이섬유가 일반 쌀의 7배, 밀의 3.7배나 높은 함량을 지니고 있다. 변비 예방, 비만 예방, 피부미용 등에 좋아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당뇨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군산콩당보리축제 20주년 특별한 잔치 24~27일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난타·노래자랑·수제맥주·체험마당 등 자연과 교감하며 지역 농민들과 소통



◆ 두근두근 스무 살 축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다

군산시는 '군산콩당보리축제'의 스무 살을 기념해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한 잔치를 치를 계획이다. 주제는 '콩당보리 20주년, 두근두근 스무 살'이며 장소는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이다.

축제 기간에는 볼거리, 먹거리 등 6개 마당, 50여 개의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파랑계 펼쳐진 보리밭 사이길을 걸으며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아련한 추억을 담는 농촌체험 등으로 꾸며져 최고의 가족 나들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부 행사로는 △개·폐막식 △난타 △노래자랑 등 시민참여 무대, △버스킹 등 공연 마당,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전시마당, △농특산물·짬뽕라면·수제 맥주를 살 수 있는 장터, △그린카페 △보리밭 힐링 쉽터 등 쉽터 마당, △전통 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 체험마당 △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보리밭 사이길 포토존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군산콩당보리축제' 추진위원회 유덕호 회장은 "축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을 위해 작년 축제에 진행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라면서 "올해 축제는 방문객 동선을 고려한 행사장 배치, 안전관리 대책의 강구,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제 콩당보리 축제는 단순한 봄 축제가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며 지역 농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축제의 장이자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됐다.

또 한 번의 특별한 봄날을 선사할 올해 콩당보리 축제. 미성동의 푸른 보리밭에서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만끽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자.

/군산=지송길 기자

